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06년도 제10차 회의

1. 일 자 2006년 5월 11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성 태 의 장 (총 재)
이 덕 훈 위 원
이 성 남 위 원
이 승 일 위 원
심 훈 위 원
박 봉 흠 위 원
4. 결석위원 강 문 수 위 원
5. 참 여 자 이 상 용 감사 박 재 환 부총재보
김 수 명 부총재보 이 영 균 부총재보
윤 한 근 부총재보 김 병 화 부총재보
정 해 왕 금융경제연구원장 김 재 천 조사국장
이 주 열 정책기획국장 장 병 화 금융시장국장
이 광 주 국제국장 정 이 모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장 세 근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18호 — 통화정책방향〉

(1)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 조사국장이 보고 제52호 - 「국내외 경제 동향」, 국제국장이 보고 제53호 - 「외환·국제금융 동향」, 그리고 금융시장국장이 보고 제54호 - 「금융시장 동향」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별첨)

(2)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18호 - 「통화정책방향」을 상정하였음

(3) 위원 토의내용

「국내외 경제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은 중장기적인 수급여건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단기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추세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이에 더해 반도체의 가격하락이 계속되는 경우 실질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이 감소하여 소비나 투자 등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동 위원은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 및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수출기업들의 경쟁력향상 노력과 전세계적인 경기회복 추세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에 주로 기인하지만 원화환율의 추가하락을 예상한 기업들의 밀어내기 수출의 영향도 일부 작용한 부분이 있는지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주요 수출기업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밀어내기 수출보다는 선물환 등 외환거래를 통해 환위험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동 위원 및 다른 일부 위원은 경기상승기의 환율하락은 현금보유비율이 높은 대기업의 자본재수입을 촉진하여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환율하락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내수부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환율하락의 내수진작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교역재부문에서 비교역재부문으로의 자원이동 및 기업들의 체질강화를 유도하여 내수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과 환율하락이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있는 부문과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간의 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동 위원은 최근의 아파트매매가격 동향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년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매매가격의 상승세가 조금씩 높아

지고 있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최근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수출 단가 상승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되므로 수출 동향분석 및 전망시 수출물량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3월중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개선추세 둔화가 환율하락에 따른 기업 채산성악화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계절조정 기준 실업률이 전년말 수준을 기록하고 고용률도 60%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상황이 최근 들어 개선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작년 이후 미약하게나마 고용상황의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음

「외환·국제금융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최근 은행들의 외화차입 확대가 환율하락 기대에 주로 기인한 것인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은행들의 외화차입 확대는 환율하락 기대, 수출기업의 선물환 매도, 외화대출용 자금수요 등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하며 자금조달 비용 면에서 볼 때 해외차입이 국내차입에 비해 크게 유리한 점은 없으나 차입절차의 편의성 등으로 해외차입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동 위원은 미국경제의 대내외 불균형 및 세계경제의 불균형 조정과정에서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단행될 가능성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계경제의 불균형 조정과정에서 위안화의 절상이 예상되지만 단기간에 위안화 환율의 큰 폭 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지배적인 관측이라고 답변하였음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4월중 M3증가율이 높아진 반면 M1증가율은 낮아짐에 따라 금융기관 단기수신 비중이 다소 하락했다는 점에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가격이나 물가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4월중 M1증가율이 하락한 것은 전월에 크게 늘어났던 MMF자금 등 단기수신이 부가세 등 세금납부를 위해 인출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되며 현재의 시중유동성 수준은 경제활동규모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은행들이 원화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에서 외화차입을 확대하거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당국의 주택관련대출 억제시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관련대출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상과 같은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통화정책방향」에 관해 다음과 같은 토론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 금리인상이 시중유동성 상황에 미친 효과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콜금리 인상에 따라 유동성 상황 완화의 정도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통화정책 수행방식이 과거에는 통화량을 중간목표로 삼았으나 물가안정목표제 채택 이후에는 금리를 운영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유동성 상황을 판단하는데 있어 금리 등 가격지표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변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정책금리 인상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리평가이론에 따르면 정책금리 인상이 환율하락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나 동 이론이 지극히 단순하여 현실적으로 잘 성립하지 않으며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정책금리와 환율 간의 인과관계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동 위원은 최근 중소기업 및 가계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현재는 이들 부문의 연체율이 낮아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금융기관들의 여신심사가 다소 느슨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금리인상이 중소기업 및 가계 대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상과 같은 토론에 이어 콜금리 목표 조정여부 및 조정폭에 관한 위원별 의견개진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기는 예상범위내에서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중장기적인 안정기반 구축을 위해 시중유동성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나 최근과 같이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때에는 이러한 조치가 경제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 통화정책방향 의결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환율변화와 관련된 세계 경기 및 자금흐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대외부문의 안정화 노력에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첫째, 경기 면에서, 지난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1.6%로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금년 1/4분기에는 전기대비 1.3%를 기록하는 가운데 수출과 내수 간 불균형이 시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내수중에서는 상당기간 부진하였던 소비와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경기회복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음.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활발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고용증대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신장세가 이어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됨; 둘째, 대외균형 면에서, 기초경제여건을 반영한 완만한 환율하락은 경기상승기에 자본재 수입 증가를 유발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민간 소비를 촉진시키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 그러나 주요 경쟁상대국에 비해 원화환율이 더욱 크게 하락하는 등 최근과 같은 급격한 환율하락이 수출업체는 물론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됨; 셋째, 물가 면에서, 고유가 지속 및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한 점 등이 상방위험 요인으로 잠재되어 있으나 경기상승세가 급속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됨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금융 및 실물경제의 국내외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첫째, 물가 면에서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2.0% 상승하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년동월대비 1.6%를 기록하여 물가안정목표 범위 하한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음.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이 급등하였으나 환율이 하락하고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아 물가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상승할 징후는 감지되고 있지 않음; 둘째, 실물경제 면에서는, 내수가 회복되고 수출의 견실한 신장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서비스업과 제조업 생산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음. 경상수지는 수입증대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와 서비스 및 소득수지 적자에 기인하여 적자를 나타냈으며 원화강세 및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적자폭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생각됨; 셋째, 금융시장 면에서, 풍부한 단기부동자금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의 거품을 유발하고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최근 중소기업과 가계 부문으로의 대출편중이 심화됨에 따라 금융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넷째, 대외여건 면에서, 주요 선진국의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통화정책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됨에 따라 유동성이 풍부하였던 저금리시대와는 다른 경제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세계경제 불균형에 따른 불확실성 심화와 원화환율의 급격한 하락세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다섯째, 단기금리가 상승하고 장기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익률곡선이 평탄해지고 경기선행지수가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등 경기회복세가 다소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서민가계의 금융부채 부담이 적지 않은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임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경제 개선추세에 상응하여 금융완화의 정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기존의 정책기조는 계속 유효하나 최근 유가 및 환율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회복의 정도를 좀 더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에는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첫째, 물가 면에서, 하반기중 물가오름세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현재 소비자물가와 근원인플레이션 모두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물가안정기조가 저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됨; 둘째, 경제성장 면에서, 그동안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와 내수회복에 힘입어 국내경기의 상승세가 이어져 왔으나 최근 경기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임을 고려할 때 경기상승세가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됨. 특히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환율의 급격한 하락은 수출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임; 셋째, 금융시장에서는 최근 은행간 대출 경쟁이 다소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넷째, 그동안 콜금리 목표 상향조정의 주요 요인이었던 시중자금의 단기화, 과잉유동성 문제는 일반의 높은 부동산투자수익 기대, 기업의 투자기회 모색 및 경영권 보호를 위한 여유자금 보유 동기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인 금리인상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타 정책수단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겠으며, 과잉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면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재 국제유가와 원화환율의 움직임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다음 통화정책방향 의결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첫째, 실물경제 면에서, 수출과 민간소비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설비투자도 완만하게나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당초 전망대로 경기상승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둘째, 물가는 유가급등 등에 따른 비용상승압력을 환율하락이 어느 정도 흡수한 데다 예년과 달리 농축수산물가격이 매우 안정되어 있는데 힘입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셋째, 금융시장 면에서, 시중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가격 불안과 무관하지 않은 현상으로 해석됨. 따라서 실물경제 동향 및 금융시장 상황에 비추어 보면 콜금리 목표를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으나 그 시기선택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넷째, 향후 유가와 환율이 현 수준에서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대대로 점차 안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하며 더 악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번에는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첫째, 실물경제를 보면, 수출호조와 소비회복세가 지속되고 설비투자도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기상승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둘째,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실물경제활동에 비해 시중유동성 수준이 풍부한 상황인데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 불안이 좀처럼 진

정되지 않는 밑바탕에는 느슨한 통화정책기조가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됨; 셋째, 대외여건 면에서는, 최근 유가와 환율 움직임이 예상외로 급격히 악화된 데다 향후 전개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임. 이들 해외여건의 변화가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좀 더 관찰하면서 경기회복의 지속가능성과 강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이와 같은 위원들의 견해 표명을 종합한 결과에 따라 위원들은 다음 달 통화정책방향 의결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의결문안을 작성하였음

(4)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가결

의결사항

「통화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실물경제는 건설투자의 증가가 미약하나 수출이 견실한 신장세를 유지하고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경상수지는 상품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외배당금 지급 등으로 적자를 나타내었음
- ☐ 물가는 근원인플레이션과 소비자물가 모두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과 유가급등에 따른 상승압력이 잠재되어 있으며 부동산가격도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음
- ☐ 금융시장에서는 유동성사정이 원활하고 금융기관 여신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
- ☐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 목표를 현 수준(4.00%)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함

(별 첨)

『통화정책방향』 관련 보고내용

I. 국내외 경제동향

1. 해외경제동향

가. 주요국경제

미국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음. 1/4분기 GDP성장률이 4.8%(연율)를 기록하고 소비심리도 양호하였음

중국경제는 높은 투자 증가세와 수출 호조로 1/4분기 GDP성장률이 10.2%를 기록하는 등 고성장을 지속하였음. 한편 중국정부는 투자 억제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상(4.28일, 1년만기 기준 5.58% → 5.85%)하였음

일본경제는 3월중 소비가 폭설 등의 영향으로 부진하였으나 광공업생산이 증가로 반전하고 수출도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는 등 회복세가 유지되었음

유로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었음. 2월중 산업생산 증가세가 주춤하고 소매판매가 감소로 전환하였으나 제조업수주가 증가로 반전되고 수출도 호조를 지속하였음. 또한 주요 경기심리지표는 3월에도 상승세를 유지하였음

나. 국제금융시장

4월중 미국 주가는 상승하였으나 유로지역 및 일본 주가는 약보합을 보였음. 미국 주가는 유가상승 등으로 4월초 소폭 약세를 보였으나 이후 연준 금리인상 조기종료 기대, 1/4분기 기업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상승하였음. 유로지역 주가는 약보합을 보였으며 일본 주가도 유가급등, 엔화강세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하였음

미 국채금리(10년 만기 국채수익률)는 유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우려,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상승세가 유지되었음

4월중 미 달러화는 미 금리인상 중단 전망, ECB 인사들의 금리인상 시사 발언 및 G7회의(4.21일)에서의 아시아통화 절상 촉구 등으로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해 큰 폭의 약세를 보였음

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4월중 국제유가는 이란 핵문제, 나이지리아 원유생산 차질 등으로 급등하였음. Dubai유가가 5.3일 68.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기타원자재가격은 곡물가격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비철금속가격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음. 동 가격은 일부 광산의 노사분규, 투자펀드의 매수세 등으로 급등하였으며, 알루미늄 가격도 미국과 중국의 수요증가 등으로 상승하였음

2. 국내경제동향

가. 국내수요, 산업활동, 고용

소비는 회복기조가 유지되었음. 3월중 소비재판매가 내구재(승용차, 혼수용품 등)를 중심으로 1~2월과 비슷한 증가세(전년동월대비 1~2월 4.9% → 3월 4.8%)를 보였으며 4월에도 백화점 매출 및 할인점 매출이 견실한 증가세를 보였음

설비투자는 개선추세를 이어갔음. 3월중 설비투자추계지수는 운수장비투자의 높은 신장세 및 기계류 호전에 힘입어 증가세가 확대(전년동월대비 2월 2.4% → 3월 10.3%)되었음

건설투자는 낮은 증가세가 이어졌음. 3월중 건설기성액(명목금액)은 주거용 건축이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비주거용 건축이 소폭 감소함에 따라 증가율이 하락(2월 9.2% → 3월 6.3%)하였음.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도 크게 감소(전년동월대비 2월 22.2% → 3월 -34.5%)하였음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가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등도 견실한 증가를 보여 전월에 이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시현하였음(2월 21.7% → 3월 10.4%).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생산호조를 반영하여 전월보다 상승(2월 80.9% → 3월 81.5%)하였음. 한편 재고율(계절조정 재고지수/출하지수 × 100)은 05.11월을 저점으로 완만한 상승추세를 지속(2월 93.0% → 3월 94.9%)하였음

서비스업활동은 신장세가 지속되었음. 3월에는 증가세가 소폭 둔화(전년동월대비 2월 6.2% → 3월 5.2%)되었으나 1/4분기로는 6.1%로 지난 4/4분기(5.8%)보다 증가율이 상승하였음

고용사정은 완만한 개선추세를 지속하였음. 3월중 취업자수는 제조업과 농림어업 부문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축소(06.2월 +33만명 → 3월 +27만명)되었으나 1/4분기 전체로는 33만명 증가하여 2005년(30만명 증가)보다 양호하였음. 3월중 실업률(계절조정후)은 3.5%로 전월과 동일하였음

2월중 임금상승률은 전월이 설 보너스 지급 등으로 크게 상승한 데 따른 반사효과로 하락(06.1월 20.5% → 2월 -7.1%)하였음

나. 물가 및 부동산가격

4월중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2.0% 상승하여 안정세를 지속하였음.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가격이 상승하였으나, 농축수산물가격이 출회증가 등으로 하락하고 서비스가격도 각급 학교 납입금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둔화되었음

근원인플레이션은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6% 상승하였음

4월중 아파트 매매가격은 오름세가 확대(전월대비 3월 0.8% → 4월 1.1%)되었음. 전월과 마찬가지로 서울 강남지역(3.2%) 및 분당(3.1%), 용인(3.3%) 등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음. 아파트 전세가격은 계절적인 이사수요 감소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3월 0.9% → 4월 0.7%)되었음

다. 대외거래

4월중 수출(258억달러)은 전년동월대비 12.7% 증가하여 건실한 증가세를 지속하였음. 일평균 기준으로 11.5억달러로 사상 최대치(종전 05.10월 11.3억달러)를 기록하였음

4월중 수입(242억달러)은 전년동월대비 14.0% 증가하여 수출증가율을 상회하였음. 원유 수입이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재 수입도 크게 증가하였음

3월중 경상수지는 전월에 이어 적자를 지속(2월 7.8억달러 적자 → 3월 3.7억달러 적자)하였음. 상품수지 흑자가 확대되었으나 대외배당금 지급(21.1억달러)이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하였음

II. 외환 · 국제금융 동향

1. 환율

4월말 원/달러 환율은 943.4원으로 전월말대비 28.2원 하락(월중 3.0% 절상)하였으며, 월평균 환율은 952.9원으로 전월대비 22.3원 하락(2.3% 절상)하였음. 월 초순 외국인의 역외선물환(NDF) 매도 및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으로 크게 하락하였다가 월 중순 들어 외국인투자 배당금 송금 증가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월 하순에는 미 달러화 약세폭 확대 등으로 하락세로 반전되어 943.4원으로 마감하였음

4월말 원/엔 환율(100엔당)은 825.6원으로 전월말대비 1.9원 하락(월중 0.2% 절상)하였음.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이 엔/달러 환율보다 다소 컸기 때문임

한편 주요 10개 교역상대국의 환율변동을 고려하여 산출한 4월중 원화의 명목실효환율(월평균 기준)은 전월대비 1.8% 절상되었음

2. 외환수급

4월중 경상거래는 적자규모가 전월(-2억달러)보다 확대(-10억달러)되었음. 무역거래는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감소함에 따라 흑자규모가 전월(30억달러)보다 축소(22억달러)되었으며 무역외거래는 외국인투자 배당금 송금 증가로 소득거래 적자가 확대되었으나 특허권사용료 감소 등으로 서비스거래 적자가 축소됨에 따라 전월(-32억달러)과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였음(-31억달러)

4월중 자본거래는 순유출규모가 전월(-40억달러)보다 크게 축소(-22억달러)되었음. 장기자본거래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자금 및 증권투자자금의 유입으로 전월(-33억달러)보다 순유출규모가 축소(-20억달러)되었음. 단기자본거래도 무역관련 신용도입 증가 등으로 전월(-7억달러)보다 순유출 규모가 축소(-2억달러)되었음

4월중 금융거래는 순유입규모가 전월(45억달러)보다 대폭 확대(71억달러)되었음. 국내은행은 선물환 매입초과 포지션 커버 및 외화대출을 위해 단기차입을 증가시킴에 따라 순유입(10억달러)되었으며, 외은지점도 선물환 매입초과 포지션 커버를 위한 본지점 차입 등으로 외화자금 조달을 대폭 늘렸음(63억달러)

3. 외환보유액 및 외채

4월말 외환보유액은 2,229억달러로 월중 56억달러 증가하여 전월(14억달러)보다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 미 달러화 약세에 따른 유로화 등 기타통화 표시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임

4월말 총외채(추정치)는 2,122억달러로 월중 99억달러 증가하여 전월(68억달러)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음. 장기외채는 기업및 은행의 외화증권발행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하였고, 단기외채는 은행차입을 중심으로 85억달러 증가하였음

한편 순대외채권은 총대외채권이 증가(65억달러)하였으나 총외채가 더 크게 증가(99억달러)하여 전월말보다 35억달러 감소한 1,136억달러로 추정됨

4. 국내은행 외화자금사정

4월중 국내은행의 외화차입여건은 외평채 가산금리가 Moody's 사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전망 상향조정으로 하락하는 등 원활하였음. 국내은행의 장단기 차입 가산금리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4월중 국내은행은 선물환 매입초과 포지션 커버 등을 위해 만기도래액보다 큰 규모를 차입하였음. 외화콜론은 외화자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회수되어 전월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 외화대출은 13억달러 증가하였으며 거주자외화에 금도 6억달러 증가하였음

5. 국제금융시장

4월중 미국 주가는 지수별로 상이하였음. Dow Jones 지수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상승(2.3%)하였으며, Nasdaq 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실적부진으로 소폭 하락(-0.7%)하였음

4월중 유럽 주가는 국가별로 달랐으며, 일본 주가는 하락하였음. 독일 및 프랑스 주가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국제유가 상승,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상 기대 등 등락요인이 혼재되면서 국가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음. (독일 0.7%, 프랑스 -0.6%) 일본 주가는 엔화 강세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음 (-0.9%)

4월중 미 달러화 환율은 주요국 통화에 대해 큰 폭 약세를 나타내었음. 유로화는 유럽중앙은행의 상당폭 금리인상 시사, 미 연준 Bernanke 의장의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 시사 등으로 큰 폭 강세를 보였음.(4.3% 절상) 일본 엔화도 G7회의(4.21일)에서 중국 위안화 등 아시아국가 통화의 절상 촉구, 미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 시사 등으로 큰 폭 강세를 보였음(2.8% 절상)

4월중 미국의 단기금리는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전망으로 상승하였음. 유로지역의 단기금리는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시사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일본의 단기금리는 상당기간 일본은행의 제로금리 유지 예상으로 보합세를 나타내었음

미국의 장기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및 주요 경제지표의 호조 발표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 유로지역과 일본의 장기금리도 경제회복세 가속화,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상승하였음

4월중 중국, 칠레 등의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한 반면 브라질 및 터키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인하하였음

III. 금융시장 동향

1. 금리 및 주가

4월 들어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은 3월 수출실적 호조, 미 국채 수익률 상승 등으로 월 중반 5%대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원화 강세 및 미국 정책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에 따른 콜금리목표 인상 기대 약화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음

CD(3개월) 유통수익률은 월 중반까지 상승세를 보인 후 콜금리목표 인상 기대가 약화되면서 횡보하였음

시장참가자들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가 중순까지는 높아졌다가 하순경부터 약화되었음은 각종 금융지표의 움직임에도 나타났는데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월 중반까지 순매도 후 월말 들어 순매수로 전환하였고 증권사는 채권차입잔액을 월 중반까지 늘렸다가 이후 상환을 확대하였으며 이자율 스왑금리도 현물금리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였다가 월 중반 이후 큰 폭 하락하였음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수익률곡선은 다시 평탄해지는 모습

을 보였으며 회사채 스프레드는 일부투자자들의 매입수요 지속 등으로 우량 및 비우량등급 모두 축소되면서 사상 최소치를 경신하였음

한·미간 장기금리 격차(국채 10년물 기준)는 미국 장기금리가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크게 축소되었음

은행 수신금리(4.1~23일중)는 정기에금 특판 등으로 전월에 이어 상승한 반면 여신금리는 은행들의 대출확대 경쟁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음. 대기업대출 금리는 상승하였으나 중소기업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당폭 하락하였음

4월중 코스피지수는 원화환율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 호조, 기업실적 개선 기대, 외국인 순매수 확대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지속하여 월말을 앞두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주가변동성지수(VIX)가 하락하고 거래대금도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은 현물시장에서 순매수를 확대하다 월말경 차익실현에 나서면서 순매수 규모가 소폭 증가에 그쳤음

2. 통화총량

4월중 M3증가율은 해외증권투자 확대 등으로 국외부문에서 통화가 환수되었으나 민간신용 공급이 은행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된 데 기인하여 전월보다 다소 높아진 6%대 후반으로 추정됨

M1증가율은 배당금 지급, 부가세 납부 등으로 MMF가 크게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하여 전월보다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

3. 자금흐름

4월중 은행 수신 증가규모는 정기에금이 고금리 특판 등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CD가 주된 수요처인 MMF의 수신 부진으로 감소함에 따라 소폭 축소되었음. 은행채 발행은 대출확대 소요재원 조성 필요성 등으로 계속 큰 폭 증가하였음

자산운용사 수신은 기업들의 배당금 지급, 부가세 납부 등으로 MMF가 감소로 반전한 데 주로 기인하여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음. 주식형펀드는 차익실현을 위한 환매 증가로 2004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고 채권형펀드는 증가폭

이 축소된 반면 파생상품펀드, 재간접펀드 등 신종펀드는 큰 폭의 증가를 지속하였음

전월중 상승하였던 6개월 미만 단기수신 비중은 4월 들어 MMF가 감소하면서 다시 하락하였음

4. 기업자금

4월중 기업의 직·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규모는 은행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음

은행의 기업대출(원화)은 대기업대출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중소기업대출은 은행들의 대출 확대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가세 납부 등 계절적 자금수요까지 가세하여 큰 폭 증가한 데 힘입어 4.8조원 늘어나 전월(+2.9조원)보다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

CP가 분기말 일시 상환분이 재취급되면서 순발행으로 전환된 반면 회사채(공모)는 순발행 규모가 전월보다 감소하고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도 저조하였음

4월중 기업자금사정은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수가 전월수준을 하회하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한 점에 비추어 대체로 양호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당행 조사 자금사정 BSI도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개선되었음

5. 가계신용

4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주택담보대출은 3·30대책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대출확대 경쟁, 신규 아파트 입주 증가, 전월중 아파트 거래량 증가 등에 기인하여 3.2조원 늘어나 전월(1.2조원) 및 전년동월(2.1조원) 실적을 상회하였으나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증가폭이 축소되었음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였으며, 3월말 신용카드사의 연체율도 분기말 대손상각 등으로 전월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음